

A-37 6대, 국군의 날 첫선 공군 최초의 에어쇼팀 창설

공군은 3월 8일 제8전투비행단 소속 지상공격용 항공기 A-37(일명 드래곤 플라이) 6대로 에어쇼팀을 창설, 작년 12월부터 훈련을 해왔으며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에어쇼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어쇼팀은 김용대소령(35, 공사32기)을 팀장으로 소령-대위 10명으로 구성된다.

A-37은 고등훈련기 T37을 개조한 비행기로 길이 29피트, 날개 폭 38피트, 높이 9.5피트, 순항속도 2백50노트, 최대속도 마하0.7, 행동반경 2백마일이다.

대만, 천마미사일 개발 재추진의사 밝혀

대만의 장중령 국방부장은 대만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중국의 M계열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상해와 무한까지 이르는 사정거리 1천km의 "천마 지대지 미사일" 개발을 재추진할 것을 밝혔다고 홍콩 연합보가 보도했다.

장국방부장은 입법원(의회) 국

방위원회에 출석,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패트리엇 미사일이 중국의 M계열 미사일을 1백% 저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82년 중단된 천마 지대지 미사일 개발을 재추진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는 패트리엇 미사일이 지난 91년 걸프전때 이라크의 스킨드미사일을 이스라엘에서는 약 40%,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약 60%만 격추시켜 대기층 통과된 수직낙하방식으로 급속히 떨어지는 M계열 미사일로부터 대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만은 지난 81년 천마미사일 개발에 착수했으나 미국의 개발 중단 압력과 지대공인 천궁 미사일, 공대공인 천검 미사일 개발이 더 시급해지자 천마계획을 1년만에 포기했다.

미국 MD사 군수공장 폐쇄

미국 맥도넬 더글라스(MD)는 95년 후반에 미사일등을 생산하는 군수공장 2곳을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총 1천3백여명의 종업원을 해고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국방예산 삭감에 대응해 91년이후 종업원을 거의 반가량 줄였는데, 병기 생산계획 축소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합리화도 더욱 촉진키로 했다.

폐쇄대상이 되는 것은 플로리다주 티츠빌에 있는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생산공장과 미사일부품 및 일렉트로닉스부품을 생산하는 미주리주 센트랄즈공장의 2곳이다.

싱가포르, 호주에 공군기지 마련 넓은곳에서 마음대로 훈련위해

싱가포르는 호주와 공군기지를 공유할 계획에 따라 과밀한 자국의 땅이 공군기지를 버리고 호주에 광활한 기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호주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다.

그는 이와 같은 계획은 합동군사작전의 능력을 향상시켜 양국 모두에 전략적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싱가포르와 이에 관한 협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의 지난 93년 퍼스 근처의 한 호주공군기지로 27대의 제트기를 옮긴 바 있고 이번 계획에는 약 20대의 A-4 슈퍼 스카이호크 공격용 제트기와 12대의 전투용 헬리콥터를 퀸즐랜드로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카이호크 훈련 부대는 호주 브리즈번 근처 엠벌리의 F-111폭격기 기지를 이용하고 슈퍼푸마 헬리콥터는 육군항공대 기지로 갈 것으로 전해졌다.

싱가פור는 이미 10대의 전투용 및 공격용 전투기를 호주에 순환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해왔다.

싱가פור는 75대의 스카이호크, 18대의 F-16 전투기 그리고 38대의 F-5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러, 방위협력에 적극적 인도에 첨단 군사기술 이전

러시아는 인도에 군사기술을 판매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통제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첨단 군사기술을 예정대로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의 PTI통신은 뉴델리에서 인도 국방 당국자들과 회담에 들

어간 안드레이 코코신 러시아 국방 제1차관이 세계 여러나라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첨단 기술이전 계약은 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코코신차관은 "러시아와 인도의 방위협력관계는 양국 모두에게 유익하며 상호보완적인 차원에서 추진될 것"이라며 "우리는 인도가 훌륭한 기술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 정부의 소식통들은 지난 달 7명의 전문가들을 이끌고 뉴델리에 도착한 코코신차관이 인도정부 당국자 및 과학자들과 광범위한 접촉을 갖고 있다며 러시아가 아직까지 다른 나라에 판매한 적이 없는 수호이-30 다목적 항공기와 최신 항공전자 기술 판매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는 지난 93년 러시아로부터 저온로켓엔진을 구입했으나 그같은 엔진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도입계약은 저온로켓엔진이 탄도미사일 제작에 사용될 수 있다는 미국의 문제 제기가 있는 뒤 취소됐었다.

이란과 비밀 무기거래 프랑스 주간지 확인 보도

프랑스는 이란에 대한 국제무기금수조치에 불구하고 지난해 비밀리에 무기거래 계약을 맺었다고 주간지 렉스프레스가 보도했다. 렉스프레스 최신호는 프랑스 내무부가 지난해 10월 알제리를 중개자로 내세워 이란과의 무기거래를 추진했다고 밝히면서 외무부와 해외정보부(DGSE)의 고위관리들에 의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렉스프레스는 이란에 판매한 무기의 상세한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아마도 공대지 미사일이 포함돼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항공기 제작회사인 아에로스파살과 마트라, 지아트등을 무기공급자로 거명했다.

이 잡지는 지난해 10월 11일 알제리 항공사의 화물기가 프랑스의 수출무기를 지중해의 도서국가인 키프로스로 수송한 뒤 이곳에서 다시 이란 항공기에 옮겨 실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중국, 차세대 전투기 곧 생산

중국이 차세대 전투기인 쟈스

의 초보적인 생산단계에 이미 돌입, 앞으로 10년안에 작전능력을 갖춘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홍콩 성도일보가 15일 미국의 항공우주기술잡지를 인용,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방부내에는 중국이 개발한 쟈스전투기의 초안설계도가 회람중이며, 미국 F-16 전투기 또는 이스라엘의 전투기를 모델로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쟈스는 단기통엔진에 선진기술인 비행전자제어장치, 레이더유도의 공대공미사일 능력등을 갖추는등 첨단설비를 보유했으며 지상공격에 적합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B-1B 폭격기 한국파견 핵탄 탑재가능

미국은 핵무기 탑재능력을 갖고 있는 B-1B 전략폭격기를 파견해 첫 폭격훈련을 실시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한미군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B-1B 폭격기 2대를 한국에 보내 서해안·경북 지역 공군훈련장에서 각각 1발씩 2발의 관성 폭탄을 투하하는 훈련을 실시한다. 이들 폭격기들은 괌의 미군 기지를 전진기지로 사용하며, 이

후 다음달초까지 2~4차례 같은 훈련을 반복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B-1B전략폭격기는 지난 93년 한-미 팀스피리트 연합훈련기간 중 장비전시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적은 있으나 폭격훈련을 목적으로 한국에 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무기구매에 23억달러 대만, 새 회계년도에 계상

대만 국방부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95회계년도에 23억달러 규모의 각종 무기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대만언론들이 보도했다.

국민당 당기관지인 중앙일보는 국방부 백서를 인용, 이같은 무기구매를 내용으로하는 국방예산안이 지난 11일 의회격인 입법원에 제출돼 심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시보도 대만 국방부는 새로운 회계년도에 프랑스제 라파에트급 프리깃함 구매에 5억8천만달러, 대만에서 개발한 국산전투기(IDF)생산에 4억7천7백만달러, 그리고 미제 페리급 프리깃함을 모델로 자체 개발한 미사일 장착 프리깃함 건조에 3억8백만달러를 각각 사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대만국방부가 미국으로부터 녹스급 프리깃함 6척을 9천2백만달러에 임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만은 이와 함께 미 패트리엇미사일을 주축으로 하는 방공망체계 구축을 위해 7천3백만달러를, 미국의 M60A3 탱크구매에 7천3백만달러를 각각 사용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로켓공장 폐쇄 국방예산 삭감으로

미 시오콜사(본사:유타주 오젠)는 국방예산 감축에 따라 알라바마주 헌츠빌 소재 동사의 로켓 엔진 생산공장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15개월 내에 폐쇄될 이 공장에 근무하는 3백20명도 감원할 예정이며 네바다주 카슨 시티에 소재한 계열사 옴네코사(종업원 50명 규모)도 폐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시오콜사의 총종업원수는 7천5백명으로 이번 감원 및 공장폐쇄를 위해 회사측은 3/4분기에 4천5백만 달러의 특별손실을 계상할 계획이다.